

제65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8월 7일)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보물 제1260호 공주 마곡사 괘불

유수란,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어느 날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던 중 대중에게 잠시 연꽃을 들어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제자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채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불이 연꽃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였을까요? 말로는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진정한 가르침이지 않았을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마곡사에는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려 했던 석가모니불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괘불掛佛이 전합니다. 조선 숙종 13년, 즉 1687년 5월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조성된 높이 11.6m, 너비 7.5m의 대형 불화입니다.



대형 화폭의 중심에는 보관을 쓰고, 보살처럼 화려하게 장엄한 석가모니불이 당당한 위엄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원반모양과 갖가지 구슬로 장식된 영락은 석가모니불의 몸에서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대조적으로 석가모니불이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연한 분홍색 연꽃은 그 수수함 때문에 더욱 눈에 들어옵니다.

석가모니불이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마음이 통한 제자 가섭에게 문자나 말로 녹여낼 수 없는 가르침과 깨달음의 정수를 전해줬다는 염화시중拈花示衆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말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정한 단어나 사실을 내뱉지 않고도 상대가 그 의미를 알아채고 공감하며 나눈 대화는 특히 더 즐겁습니다. <공주 마곡사 괘불>은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서로 이어져서 우주의 진리를 전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연꽃을 든 부처를 바라보며 무언無言의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시 설명이 끝나면 괘불 앞에서 <전시 속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제65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8월 7일)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3)

금강산 여행과 화가의 시선

오다연,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우리나라 실경산수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화가의 창작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특별전이 상설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별전 관련 세 번째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금강산 여행과 화가의 실경산수화를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금강산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명산입니다. 금강金剛, 개골皆骨, 풍악楓嶽, 봉래蓬萊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 산은 무엇보다 사계절에 따라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금강산은 불교의 성지로, 이곳에서 화엄경 12,000부처 가운데 중심이 되는 담무갈보살이 설법했다고 합니다. 현재 고려시대에 그려진 <금강산도>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양상은 <담무갈보살예배도>(1307년)와 같은 소형불화의 배경에 그려진 금강산 모습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금강산을 유람하길 바랬지만 가는 길이 멀고 험하며 경비도 많이 들어 쉽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람문화가 활발해지면서 화가들도 금강산 여행에 동참했고 그들은 대자연의 경험을 그림에 옮겼습니다. 18세기 자신만의 화법으로 금강산을 그린 화가는 겹재 정선이 대표적이며 이후, 김윤겸金允謙(1711~1775),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 김응환金應煥(1742~1789), 김하종金夏鍾(1792~1878), 조정규 趙廷奎(1791~1860 이후) 등 많은 화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금강산의 명승 명소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김홍도와 함께 정조의 명을 받고, 금강산을 사생하고 돌아온 김응환이 남긴 《해악전도첩海嶽全圖帖》은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으로 의미가 큼니다. 김응환은 60면 화폭에 내외금강 및 해금강의 절경을 거침없이 표현하였고, 감각적인 채색으로 숲과 바위산, 계곡, 바다를 칠했습니다. 당시 ‘중국 화가의 필격’이라 평가받았던 김응환의 개성적인 그림을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속 금강산 구석구석을 김응환 일행과 걸으면서 울여름 더위를 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나아가 김응환의 손자이자 도화서 화원이었던 김하종이 제작한 《해산도첩海山圖帖》(1816년)과 비교하면서 본다면 그림 감상의 재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동물모양띠고리

최정아, 104호 부여삼한실 19:00~19:30

동물모양띠고리[動物形帶鉤]는 옷을 결속하기 위해 사용한 갈고리 모양의 허리띠 부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원삼국시대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는 이것은 한쪽에 갈고리 모양의 걸쇠를, 다른 한쪽에는 원형 혹은 타원형의 고리를 두어 서로 걸게 만든 허리띠의 일부입니다. 가죽이나 천으로 된 부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동물모양의 장식이 달린 걸쇠만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간혹 철로 만들어진 것도 발견되나 대부분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면은 동물의 옆모습을 표현하였고, 오목한 뒷면에는 가죽띠와 연결하기 위해 꼭지를 달았습니다. 동물의 가슴 앞으로는 긴 막대를 연결하고 끝을 구부려 걸쇠를 만들었습니다. 동물모양은 호랑이와 말 두 종류가 확인됩니다.

동물모양띠고리가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영천 어은동 유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18년 폭우로 땅속에 묻혀있던 한나라거울[漢鏡], 모방거울[倣製鏡], 말과 사슴머리모양 장식, 단추 장식 등 다양한 청동유물과 함께 호랑이모양띠고리와 말모양띠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호랑이모양띠고리는 웅크린 호랑이의 허리와 어깨, 얼굴에 짧은 선을 여러 번 그은 띠무늬를 새겼고, 눈과 발도 정교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크게 벌린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표현해 마치 포효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말이 서 있는 모습의 말모양띠고리는 호랑이모양띠고리와 마찬가지로 허리와 어깨 부분에 집선문集線紋을 새겼습니다. 다리 사이의 청동판과 가슴 앞으로 뻗어 나온 걸쇠에는 쌀알 모양의 장식을 하였습니다. 얼굴에는 눈과 가죽 끈도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등장한 동물모양띠고리는 무늬가 뚜렷하고 동물의 세부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늬가 퇴화되다가 없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어, 영남지방에서는 기원 전후부터 호랑이모양띠고리와 말모양띠고리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호서지방에서는 그보다 늦은 2세기 무렵부터 주로 말모양띠고리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남지방에서는 동물형띠고리 1~2개를 무덤의 껍묻거리로 부장한데 반해 호서지방에서는 주거지, 환호 등 생활유적에서도 발견되며 하나의 무덤에 10개 이상의 띠고리를 넣는 등 지역차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동물모양띠고리는 원삼국시대 영남 및 호서지방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적인 유물입니다. 동물의 형상을 장식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북방계 혹은 초원계 유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북방에서 직접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에서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후 한반도에서 자체 생산되면서 시기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림 1. 영천 어은동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모양띠고리



그림 2. 호랑이모양띠고리의 세부 모습

제65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8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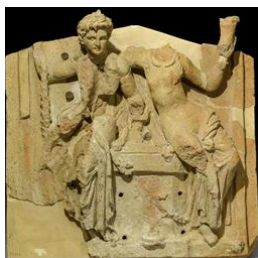
미지의 문명, 에트루리아를 만나다

양승미, 기획전시실 19:00~19:30

에트루리아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천 년간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 있던 고대 국가로, 인근 엘바 섬의 풍부한 철 자원과 강한 해상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이후 로마에 흡수된 문명입니다. 그간 그리스·로마 문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고대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했던 에트루리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에트루리아는 인근 지중해 국가들에 보편적이었던 그리스의 다신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틴/티니아(그리스: 제우스), 우니(그리스: 헤라), 멘르바(그리스: 아테나)를 3대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는 남녀가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누렸고, 강한 해상 군사력으로 ‘해적’이라는 별칭을 얻은 에트루리아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에트루리아인은 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인류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지식과 신앙을 접목한 점성술이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성술은 로마 제국 시기 60가지 체계로도 받아들여 그 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에트루리아의 무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반추해볼 수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은 사망 후 내세에서 현세의 생을 이어나간다고 믿어, 무덤 안에 고인이 생전에 누리던 많은 부장품들을 넣었습니다. 또한 장례식 연회에 고인의 영혼이 참석한다고 믿어, 사후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고인을 축복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유골함에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는 저승의 신 반트와 카룬은 고인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장면은 에트루리아인의 내세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로마에 남은 에트루리아 문명의 흔적을 통해 에트루리아가 그리스와 로마를 잇는 고대 문명 형성에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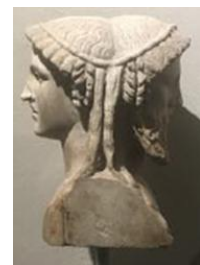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기원전 3세기



<망자를 인도하는 반트>, 기원전 2세기



<전차>, 기원전 7세기 전반



<양면상>, 1세기